

# 20세기 음악 1900년~현재

20세기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


모든 것이 급속하게 변하는 20세기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던 이전과 달랐다.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 다양한 음악 양식이 등장하였다.



▲ 조성의 붕괴와 불협화음 사용



▲ 12음 음악



▲ 전자 음악



▲ 유연성 음악

## 오르프 「카르미나 부라나」

1200년경부터 1300년경까지 유행 시인들에 의해 쓰인 방랑 시가집 <카르미나 부라나>에서 24개를 골라 칸타타 양식으로 작곡한 곡이다. 단순한 화성 구조와 매우 대담하고 강렬한 리듬을 기초로 한다.

❖ 도입부의 강렬한 타악기 반주를 느끼며 감상해 보자.



♣ 오르프  
Orff, Carl  
(1895~1982, 독일)

- 음악 교육가
- '아프로디테의 승리' 등

### 원시주의 음악

강렬한 리듬과 음색을 사용하여 야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음악



## 쇤베르크 「달에 홀린 피에로」 중 제8곡 '밤'

가곡에 연극적 기법을 도입한 표현주의 음악으로, 조성 없이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노래와 말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성악 기법(말하는 선율)이 사용되었다.

❖ 제8곡 '밤'을 감상한 후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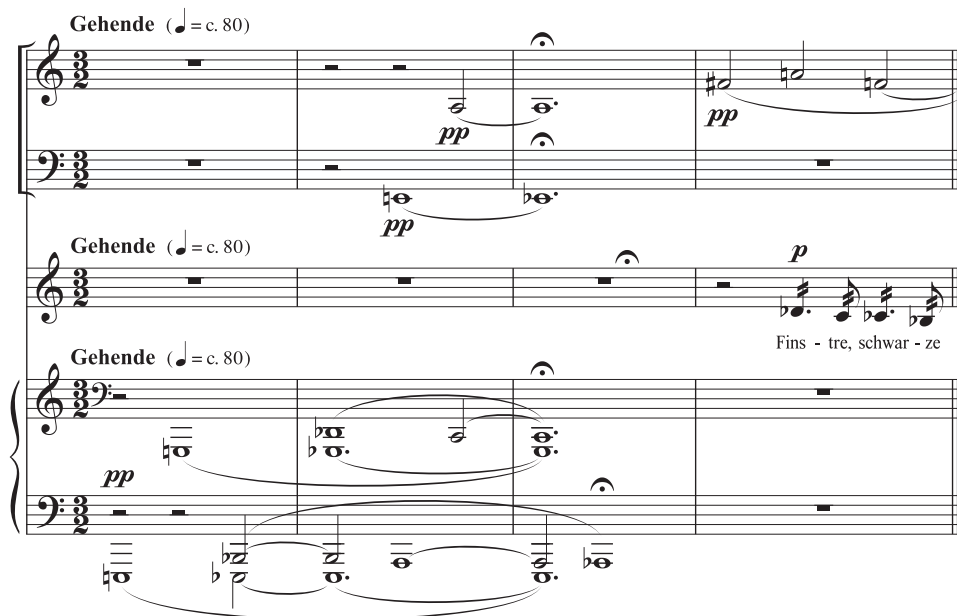


♣ 쇤베르크  
Schönberg, Arnold  
(1874~1951, 오스트리아 →미국)

- 12음 기법 개척
- '바르샤바의 생존자' 등

### 표현주의 음악

인간의 내면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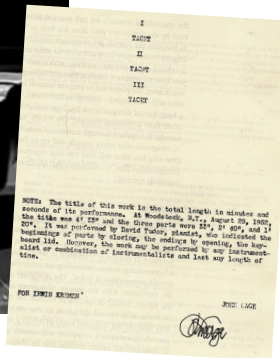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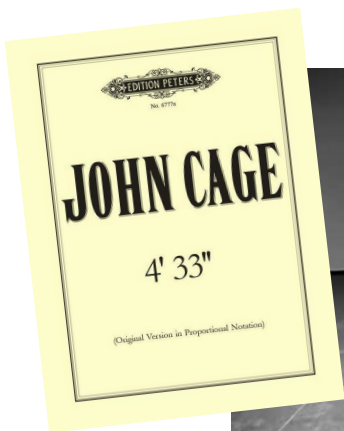


페이지

4분 33초

3악장 구성으로 악보에는 음표나 심표 없이 'TACET(침묵)'이라는 악상만 쓰여 있다.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이 전부인 음악이다.

❖ '4분 33초'를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해 보자.



👑 케이지

Cage, John  
(1912~1992, 미국)

- 음악에 우연적 요소 도입
- '상상 풍경 4번' 등

**우연성 음악**  
작곡이나 연주하는 과정에서  
형식과 구조가 우연히 결정  
되는 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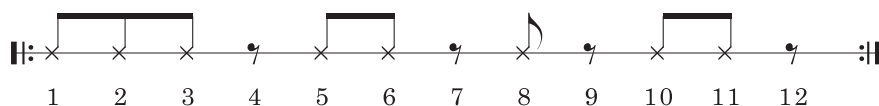
❖ '4분 33초'를 감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음악의 범위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.

라이시

클래핑 뮤직

1972년 라이시가 두 명의 연주자를 위해 작곡한 미니멀 음악이다. 박수 소리를 악기로 사용한 곡으로 간단한 규칙에 따라 단순한 리듬을 확장해 나간다.

❖ '클래핑 뮤직'을 감상해 보고, 미니멀 음악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.



❖ '클래핑 뮤직'을 연주해 보고, 평가해 보자.

- 다 함께 연주하기 \_\_\_\_\_
-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주하기 \_\_\_\_\_

클래핑 뮤직  
연주 방법



- 1 두 모듬(㉠, ㉡)이 위 리듬을 8번 반복한다.
- 2 ㉠ 모듬이 1~12를 연주하는 동안 ㉡ 모듬은 2~12, 1의 순서로 8번 연주한다.
- 3 ㉡ 모듬이 1~12를 연주하는 동안 ㉠ 모듬은 3~12, 1, 2의 순서로 8번 연주한다.
- 4 같은 방법으로 연주하다가 두 모듬이 같은 리듬을 연주하면 8번 연주하고 마친다.



👑 라이시

Reich, Steve  
(1936~, 미국)

- 미니멀 음악 발달에 기여
- '4대의 오르간' 등

**미니멀 음악**  
최소한의 재료로 만든 모티  
프를 반복하면서 전체를 이  
끌어가는 음악